

일본 지역조사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

김창환*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Regional Surveyor System in Japan

ChangHwan Kim*

요약 :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위상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지리학회 중심의 지리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조사사’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전문화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이 중요한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 사례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조사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리학계나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조사사 자격 제도는 ‘지역조사사’와 ‘전문지역조사사’로 구분되며,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일본지리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소정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된다. 이 제도는 지리학을 사회에 인지도시키고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지리학 관련 학회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지리학의 유용성·중요성·즐거움을 사회에 알리는 데 필요한 한국형 자격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지역조사사, 전문지역조사사, 자격제도, 일본지리학회, 지리학

Abstract : The social status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has declined in both Korea and Japan. But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made efforts to promote that of geography. One of such efforts is qualification system about ‘regional survey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o through the system of ‘regional surveyor’ in the Japan, to find out whether we would use it in Korea.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regional surveyor is divided into regional surveyor and professional regional surveyor. And regional surveyor must complete required courses from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professional regional surveyor must get a doctorate or write a paper elaborated upon a doctorate. This system is geography to let society know, and it will be an instrument that geographers can interact directly with the society. Therefore, I think it is worthwhile to examine it enough this system in Korea.

Key Words : Regional surveyor, Professional regional surveyor, Qualification system, The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Geography

I.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각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여 지리학과 지리교육 관련 학과들의 축소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폐과에 이어 신라대 지리학과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 지리학과 지리교육 관련 대학교수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llskim@kangwon.ac.kr)

중등학교 지리 교사들은 항상 지리의 미래를 고민한다. 많은 논의와 방안들을 표출해 보지만, 아직은 뚜렷한 방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역사' 분야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과목이 늘어났지만, '지리' 분야는 오히려 축소되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뿐이다. "구글이 있는데 구태여 중등교육에서 지리교육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수능체제 변경 안을 구상한 어느 교육학자 심의위원의 발언(남영우, 2010)은 우리를 아연케 한다. 하지만,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위기를 논의할 때, 항상 먼저 거론되는 것이 초·중등교육에서의 지리교육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리교육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지리'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지리'를 잘 안다는 의미는 '길을 잘 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특성을 밝힌다는 가장 근원적인 지리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리학자와 지리교육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리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지리학은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리학은 실제하는 환경과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이므로 정직하고 구체성을 띠는 학문이다. 여기에 지리학은 '유일'하게 현상보다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지리학은 전문화와 병행하여 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위상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리학과'가 '지역시스템학과'·'공간정책연구과'·'지구환경과학과'·'지역환경학과'·'국제관계 및 지리학과'·'지리학 및 지역개발학과' 등과 같이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한 명칭으로 바뀌고 있다(남영우, 2010). 그래서 (사)일본지리학회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조사사'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전문화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이 중요한 지리학이란 대명제 속에서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 일례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조사사' 제

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리학회나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

1. 지역조사사 제도의 설립 배경

일본의 경우 봉건적 농업국가에서 메이지유신을 거쳐 근대공업국가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지리교육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공업입지와 국제화 사회의 구축에도 지리적 지식과 공간인식의 조성없이 일본의 발전은 없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메이지 이후의 일본의 지리학은 대학에서의 지리학연구와 교육현장에서의 지리교육을 2개의 큰 축으로 국가 만들기, 지역 만들기에 공헌해 왔다(戶所 隆, 2011). 이와 같이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이 일본의 현대화와 세계관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일본의 패망 후 1945년 12월 31일 맥아더 총사령관이 지시한 지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민주화 교육의 일환으로 발령한 것으로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도덕을 위시하여 지리 및 지도 과목과 역사 과목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지리교육의 효과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관을 갖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의 지성인들도 이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남영우, 2010).

그러나 일본 사회는 1990년대에는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시대는 전환하면서 지리학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대는 각 학문의 전문성과 함께 학제적인 종합성을 중시한다. 이것은 문·이과 융합형 학문체계를 구축해 온 지리학의 시대 도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지리학계에서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인 전환기에, 모태가 되는 학문의 하나로서 지리학은 구심력을 높이고, 당연히 지역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지리학을 둘러싼 현실적 환경은 냉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리학이 처한 환경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어쨌든 일본 지리학계는 지리학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리학계의 구성원들이 시대의 변화

와 지리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지리학회에서는 「일본지리학회 Grand Vision」을 2004년에 공표하였다.

Grand Vision에 제시된 기본 주제는 다음 7가지이다. ①학회의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하는 학술대회와 모듬 ②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학회지의 모습 ③교육의 근간을 담당할 지리교육의 진흥책 ④지리학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자격제도의 구축 ⑤재해 대응을 통해 사회와 연계되는 지리학 ⑥안정적인 학회의 발전을 지탱하는 재무의 모습 ⑦지리학의 재구축에 이바지하는 학회 회원 증가책이다(日本地理学会, 2004).

이 중에서 4번째인 지리학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자격제도의 구축은 지리학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공익적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리학의 사회공헌 요소로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일본지리학회 기획전문위원회는 생각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할 수 있는 지역조사력이며, 또 하나는 지리적 사고를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GIS와 관련된 기능이다.

GIS에 관해서는 2004년부터 일본지리학회 내에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자격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2007년 3월 일본지리학회 대의원회·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승인되어 2007년부터 GIS학술사 자격위원회 주관으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한편, 지역조사사의 제도 설계는 전술한 일본지리학회 Grand Vision 공표 후, Grand Vision 추진위원회 주도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자격제도 자체만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6~2007년의 일본지리학회의 기획전문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지역조사사제도 창설에 관한 기획조사」란 제목의 연구비를 받아, 일본지리학회 회원과 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학생들의 취업 장소인 중앙관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인사·기획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조사사 인정 규정(안)」과 「지역조사사 규정 세칙(안)」을 작성하였다. 이들 규정은 2007년 후반에 개최된 사단법인 일본지리학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2008~2009년에 기획전문위원회 산하에 「지역조사사제도 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참가한 17개 대학과 5개의

지리학 관련 학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였다.

2010년에 신설된 일본지리학회 내 자격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준비를 거친 2가지 자격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우선 지역조사사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 위원회는 2010년 4월, 지역조사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전술한 GIS학술사 제도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鈴木厚志·長谷川均, 2014).

2. 지역조사사 제도 도입의 의의

일본지리학회에서 밝힌 지역조사사 제도의 주요 도입 이유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리학이 독자적 과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의 유용성과 사회공헌의 크기를 사회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지리학 전공자들은 지리적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직원이나 공무원 외에도 지도 정보·출판, 관광·운수, 조사·컨설팅, 부동산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의 존재 의식은 그다지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사회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명함에 ‘지역조사사를 기재함으로써, 활약의 학문적 배경에 지리학이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릴 수 있다.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종류의 자격인정제도로 지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지리학」을 붙이지 않는 지리학 관련 학과가 대학에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리학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으며, 지리학 전공자의 정체성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중앙집권사회에서 분권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지역정책을 책정할 때, 지리적 지식·지역조사력 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의 책정 등을 도쿄의 대형 두뇌집단이나 컨설턴트로 발주했던 자치단체도, 최근에는 조직 내 두뇌집단을 설치하여 지역의 실정을 숙지한 자치단체 직원이 스스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시장조사와 지역성 파악 등에서 지역조사력을 가진 인재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조사사 자격은 그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들어 대학에서의 지리학에 관한 교육·연구

환경이 악화되어 폭넓은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익힌 인재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조사사 인정시스템의 표준화는 대학지리교육에서의 표준커리큘럼과 학사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자격제도의 개발이 붐을 이루는 상태에서 현역 학생부터 졸업자에 이르기까지 자격취득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학회에는 이러한 형태의 인정 제도의 설치가 제도적으로도 요청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리학의 독자적인 자격제도가 없는 경우, 지리학 졸업자가 인접 분야의 자격취득 쪽으로 향하고 있어 지리학의 지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사회조사협회에 의한 사회조사사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리학 관련학회가 최근 증가 경향에 있다.

다섯째, 지역조사사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서는 일정 수의 지리학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 결과, 대학에서의 지리학 관련 과목 개설 감소를 방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과목 개설에 따른 새로운 지리학 교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지역조사사 제도의 의의는 2009년에 기획전문위원회가 국토지리협회의 도움으로 실시한 실무 지리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뿐 아니라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지리학회 내의 기획전문위원회는 지역조사사 제도의 창설이 지리학의 위기를 구할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戶所 隆, 2011).

3. 지역조사사 자격의 개념

1) 자격으로서의 지역조사사

지역조사사란 문자 그대로 지역조사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자격이다. 지역조사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의 자연현상, 인문·사회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사능력을 평가하고,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일본지리협회가 인정의 모체가 되어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이 자격은 지역의 종합과학인 지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과 특성, 지역조사의 방법 등 지리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내용을 대학에서 이수해야 한다. 즉, 과학적·종합적인 지역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우월성을 사회에 어필하는 형태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編集部, 2011a).

이 자격에는 “지역조사사”와 “전문지역조사사” 등 2개 가 있다. 지역조사사는 지역조사의 기획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그 조사·분석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며,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학부 졸업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대학에서 자격취득에 필요한 인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자격취득의 조건이다. 한편, 전문지역조사사는 높은 실천 능력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지역조사를 기획·운영하고, 고도의 분석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연구자·실무자가 이에 해당된다(編集部, 2011a).

2) 자격취득 절차

지역조사사와 전문지역조사사의 자격은 자격인정기관이 행하는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받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역조사사 자격 취득 조건은 간단하다. 대학에서 지리학과 관련된 소정의 강의 이수 와 졸업논문 제출 그리고 지역조사사 강습(총 4시간) 수강 뿐 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거의 100% 자격을 얻게 된다. 국적도 연령도 관계없다. 재학생의 경우는 취업 활동에서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의 단위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으로 「지역조사사 강습」을 미리 수강하면 「지역조사사 취득 예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Entry Sheet 또는 이력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자격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編集部, 2011b).

한편, 전문지역조사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④ 중 어느 것이든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고 지역조사사 강습과 전문지역조사사 강습(총 4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즉, ① 대학원에서 자격 신청에 필요한 지리학의 인정과목을 이수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지역조사에 관한 실무를 3년 이상 경험하고, 지역조사에 관한 높은 수준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② 대학원에서 자격신청에 필요한 지리학의 인정과목을 이수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지역조사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③ 지역조사에 관한 실무를 3년 이상 경험하고, 지역조사에 관한 논문(박사논문에 상당하는 수준)이 심사를 받아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④ 대학·대학원과 공공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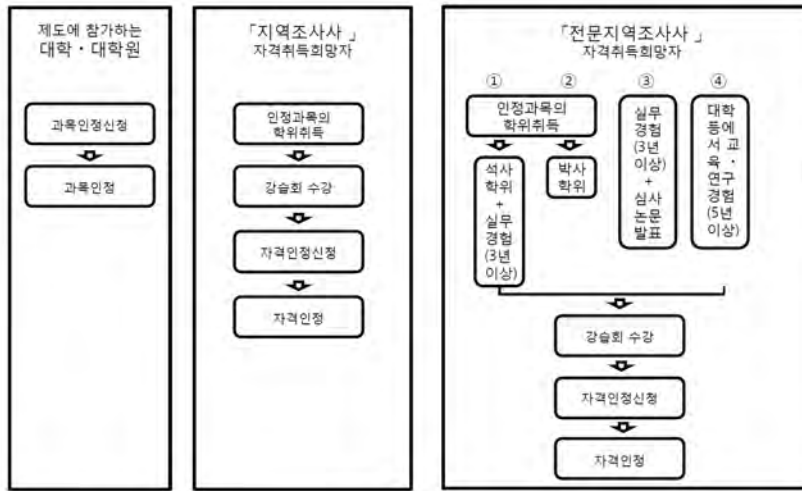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조사사·전문지역조사사가 되기 위한 절차

출처 : 鈴木厚志 · 長谷川均, 2014.

사설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지역조사에 관해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험이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②의 경우는 지역조사사와 같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신청자가 이수하는(또는 이수한) 과목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학부생 때에 이수한 과목과는 관계가 없다. 과목 인정에 관해서는 학부의 과목 인정이 우선해서 심사되며, 대학원의 과목 인정은 번외로 취급하고 있다.

전문지역조사사에서 언급되는 「지역조사에 관한 실무경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인정 규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지리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문지역조사사 신청 Q&A」에 따르면, 지역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 조건인 것 같다. 「주체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하지만 최소한 조사·분석 담당으로 보고서에 참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했던 「지역 조사」는 실무로 인정될까? 이에 대해 전술한 Q&A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실무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더라도(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 같다. 일반적인 수업 이외에서 지역조사가 중심이 되어 기획·실시하고,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조사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編集部, 2011b).

3) 자격취득에 필요한 표준 커리큘럼과 과목의 인정

지역조사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대학에서 소정의 단위를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소정의 단위」란 자격을 인정하는 일본지리학회에서 자격취득에 필요한 표준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커리큘럼의 구성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뉜다. ①지역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과목(지리학원론과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등) ②지역조사의 기법에 관한 과목(지역통계학, 지도학, GIS 등) 그리고 ③지역조사실습에 관한 과목(야외조사, 졸업논문)이다. 지리학과 또는 지리교육과라면 종합적인 지역의 이해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수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커리큘럼에서 각 필요단위를 2단위 또는 1단위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업시간 수에 관해서는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며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대체로 2단위는 반 학기의 수업, 1단위인 야외조사는 2일 이상에 걸쳐 실시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編集部, 2011c).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각각의 과목에 관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인정을 받은 과목만이 「소정의 단위」의 이수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명, 예를 들면 「인문지리학」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그 과목이 수업 인정을 받

인정과목설명서																																																												
대응 인정과목	지역의 개념을 취급하는 과목 (지리학원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대학명																																																												
개설학부·학과																																																												
수업과목명																																																												
조합 과목																																																												
단위수	(반학기·1년·집중·기타)					단위																																																						
이수대상학년	학년																																																											
과거의 과목 (2010년 이전에 동일 과목이 있는 경우, 그 연도에 ○ 표시)	2010년		2007년		2004년		2001년		2000년 이전의 과목이 있는 경우의 기입란																																																			
	2009년		2006년		2003년		2000년																																																					
	2008년		2005년		2002년																																																							
담당교수	전임/비상근				자격			성명																																																				
	교수·부교수·전임강사·조교· 비상근강사·()				전문지역조사사/지역조사사				인																																																			
학과장 등 <small>(과목내용에 관해 책임을 맡은 자)</small>	교수·부교수·전임강사·조교· 비상근강사·()				전문지역조사사/지역조사사				인																																																			
강의개요 (3줄 정도)																																																												
수업내용 체크리스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No</th> <th>확인</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지역개념</td> </tr> <tr> <td>2</td> <td></td> <td>지역구분과 지역분류</td> </tr> <tr> <td>3</td> <td></td> <td>지역 스케일</td> </tr> <tr> <td>4</td> <td></td> <td>계통지리와 지지</td> </tr> <tr> <td>5</td> <td></td> <td>지역연구</td> </tr> </tbody> </table>					No	확인	핵심 키워드	1		지역개념	2		지역구분과 지역분류	3		지역 스케일	4		계통지리와 지지	5		지역연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No</th> <th>확인</th> <th>선택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지역개발</td> </tr> <tr> <td>2</td> <td></td> <td>지역경영</td> </tr> <tr> <td>3</td> <td></td> <td>자연지역</td> </tr> <tr> <td>4</td> <td></td> <td>문화지역</td> </tr> <tr> <td>5</td> <td></td> <td>사회지역</td> </tr> <tr> <td>6</td> <td></td> <td>농업지역</td> </tr> <tr> <td>7</td> <td></td> <td>광공업지역</td> </tr> <tr> <td>8</td> <td></td> <td>상업지역</td> </tr> <tr> <td>9</td> <td></td> <td>촌락지역</td> </tr> <tr> <td>10</td> <td></td> <td>도시지역</td> </tr> </tbody> </table>					No	확인	선택 키워드	1		지역개발	2		지역경영	3		자연지역	4		문화지역	5		사회지역	6		농업지역	7		광공업지역	8		상업지역	9		촌락지역	10		도시지역
No	확인	핵심 키워드																																																										
1		지역개념																																																										
2		지역구분과 지역분류																																																										
3		지역 스케일																																																										
4		계통지리와 지지																																																										
5		지역연구																																																										
No	확인	선택 키워드																																																										
1		지역개발																																																										
2		지역경영																																																										
3		자연지역																																																										
4		문화지역																																																										
5		사회지역																																																										
6		농업지역																																																										
7		광공업지역																																																										
8		상업지역																																																										
9		촌락지역																																																										
10		도시지역																																																										
※ 키워드가 수업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란에 ○ 기입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30px; margin-lef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확인 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확인 수																																																		
확인 수																																																												
수업내용 체크리스트																																																												
실러버스/수업시 배포자료/기타																																																												
수업방식																																																												
강의/실험·실습																																																												
성적평가방법·기준																																																												

그림 2. 인정과목설명서 양식

출처 : 編集部, 2011c.

표 1. 「지역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과목」의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개념을 취급하는 과목 (다음 중 2단위) • 지리학원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다음 5개 모두가 해당할 것) ①지역개념 ②지역구분과 지역분류 ③지역스케일 ④계통지리와 지지 ⑤지역연구 《선택 키워드》 (다음 중 5개 이상 해당할 것) • 지역개발 • 지역경영 • 자연지역 • 문화지역 • 사회지역 • 농업지역 • 광공업지역 • 상업지역 • 촌락지역 • 도시지역 • 인문지리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①자원과 산업 ②생활과 문화 ③글로벌화와 현대세계 ④토지이용 ⑤지역구조 《선택 키워드》 • 농촌 • 도시 • 경제 • 인구 • 관광자원 • 관광행동 • 정보화 • 산업입지 • 지각과 행동 • 역사지리 * 일본의 지역특성을 취급하는 과목 (2단위) • 일본지리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①자연 ②환경과 생활 ③문화 ④생산과 산업 ⑤국토개발 《선택 키워드》 • 풍토인식 • 경관 • 인구 • 교통 • 도시와 촌락 • 무역 • 여가 • 관광 • 재해 • 지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연특성을 취급하는 과목 (다음 중 2단위) • 자연지리학 (종합)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다음 5개 모두가 해당할 것) ①지형 ②기후 ③육수와 해양 ④식생 ⑤자연재해 《선택 키워드》 (다음 중 5개 이상 해당할 것) • 자연사 • 생물다양성 • 생태계 • 환경문제 • 환경모니터링 • 자연환경의 변화 • 개발보전계획 • 환경평가 • 자연보호 • 토지조건과 토지이용 • 지형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①일본의 지질과 지형의 특징 ②지형의 스케일 ③지형의 발달 ④제4기의 환경변동 ⑤지형과 재해 《선택 키워드》 • 화산지형 • 변동지형 • 침식지형과 퇴적지형 • 해안지형 • 카르스트지형 • 빙하지형과 주빙하지형 • 기후지형 • 수문지형 • 건조지형 • 지형과 자연재해 • 기후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①기후요소와 기후인자 ②기후구분 ③기후지 ④총관기후 ⑤기상재해 《선택 키워드》 • 대기 대순환 • 대기후 • 중기후 • 소기후 • 방사수지 • 물수지 • 지구온난화 • 이상기상과 기후변화 • 엘니뇨와 라니냐 • 대기오염 • 열섬과 냉섬 • 국지풍 • 수문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핵심 키워드》 ①수문학 ②물순환 ③물수지 ④물문제 ⑤수질 《선택 키워드》 • 강수, 침투, 유출, 증발산의 지역특성 • 지하수유동 • 삼림과 수원함양 • 수해 • 토사재해와 사방 • 토지이용의 변화와 유출변화 • 수자원의 이용 • 해양과 육수 • 하천과 호소 • 빙하와 눈
---	---

출처 : 編集部, 2011c.

지 않으면 소정의 단위를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목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대학의 학과·코스에서 인정 신청과목을 결정하고,

과목설명서(그림 2) 및 수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러버스, 강의요령 등)를 첨부하여 인정을 신청한다.

② 지역조사사 인정 위원회(연 4회 개최 예정)에서 신

표 2. 「지역조사의 기법에 관한 과목」의 키워드

- * 통계처리에 관한 과목 (2단위)
 - 지역통계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 《핵심 키워드》 (다음 5개 모두가 해당할 것)
 - ①통계와 통계지역 ②기초통계량과 그래프 표현 ③지역특성분석 ④샘플링과 조사법 ⑤질문표 작성
 - 《선택 키워드》 (다음 중 5개 이상 해당할 것)
 - 지역적 분포 • 지역의 분류 • 지역간 이동과 상호작용 • 네트워크 분석 • 지역변화와 예측 • 교차분석
 - 속성 간의 관계 • 검정과 추정 • 다변량 해석 • 수량화 이론
- * 지도에 관한 과목 (다음 중 2단위)
 - 지도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 《핵심 키워드》
 - ①지도의 개념 ②지형도 ③주제도 ④지도투영법과 좌표계 ⑤지도의 이용
 - 《선택 키워드》
 - 지도의 역사 • 다이어그램 • 지형도 읽기 • 도상계측 • 일반화 • 지형분류도 • 토지이용도 • mesh map • 통계지도
 - 시간변수
 - 측량학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 《핵심 키워드》
 - ①측량의 역사 ②오차론 ③측량원리 ④측량 방법 ⑤측량과 법률
 - 《선택 키워드》
 - 간측량 • 거리측량 • 각측량 • 평판측량 • GPS • total station • 지형측량 • 하천측량 • 사진측량 • 항공사진
 - GIS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
 - 《핵심 키워드》
 - ①GIS의 개념과 구성 ②지도와 GIS(실세계의 모델링 등) ③공간데이터 구조 ④공간데이터의 시각화
 - ⑤GIS의 이용
 - 《선택 키워드》
 - 공간데이터의 취득과 작성 • 중첩 • 버퍼링 • 공간분할(Voronoi diagram 등) • 공간검색 (불 연산 등)
 - Address Matching • 지형표현(채단식 · 음영식 · 경사각 · 경사방향 등) • 토지이용표현 • 수치지도 • DEM
 - 수치국가기본도 • 국토수치지정보

출처 : 編集部, 2011c.

표 3. 「지역조사실습에 관한 과목」의 키워드

- * 야외조사 (다음 중 1단위)
 - 지역의 인문적 특성에 관한 야외조사
 - 《핵심 키워드》 (다음 5개 모두가 해당할 것)
 - ①야외조사 기획 ②문헌·지도·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③조사항목의 검토 ④야외조사 실시 ⑤야외조사 정리
 - 《선택 키워드》 (다음 중 5개 이상 해당할 것)
 - 토지이용조사 • 지역구조 • 사회생활 • 경제활동 • 인구변화 • 지역문화 • 지형도의 이용과 작업
 - 항공사진의 이용과 작업 • 공간데이터의 이용과 작업 • 위성영상의 이용과 작업 • 경관조사 • 인터뷰조사
 - 설문조사 • 지도화
 -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야외조사
 - 《핵심 키워드》
 - ①야외조사 기획 ②문헌·지도·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③조사항목의 검토 ④야외조사 실시 ⑤야외조사 정리
 - 《선택 키워드》
 - 기후조사 • 토양조사 • 수문조사 • 식생조사 • 지형조사 • 지형도의 이용과 작업 • 항공사진의 이용과 작업
 - 공간데이터의 이용과 작업 • 위성영상의 이용과 작업 • 경관조사 • 인터뷰조사 • 설문조사 • 지도화

출처 : 編集部, 2011c.

청된 각각의 과목에 관해 수업내용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일본지리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인정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신청한 대학에 결과를 통지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와 같이 지역조사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자격 신청자가 재학하는(또는 재학한) 학과와 코스가 이수과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과목 인정에 있어서 각 과목의 핵심 키워드(5개)와 선택 키워드(10개~15개)를 정하여 수업 중에 핵심 키워드는 모두 다루며, 선택 키워드에서 5개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하나의 수업으로 이들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경우는 복수의 수업을 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신청하는 것도 인정된다.

인정위원회가 정해 놓은 키워드를 각각의 과목군 별로 표현한 것이 표 1~3이다. 이를 보면, 지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키워드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하도록 심사요령에 정해져 있다.

III.

일본에서 지역조사사 자격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낮기 때문에 이 자격을 취득했다 해도 곧바로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력서의 자격·면허란에 「지역조사사」 또는 「전문지역조사사」라고 기재하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사람에게는 학교를 막론하고 유용한 자격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지리」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관공서에서의 공무, 민간기업에서의 시장조사에서는 인정증의 효력이 한층 크다고 생각되지만, 우선은 자격 소지자가 그 계몽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이 자격의 잠재적 영향력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香川貴志, 2011).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진행 방식을 보면 ①지역의 현상 파악, ②필요한 시책 구축, ③구축한 시책의 집행, ④시책 집행 지역에서의 효과 인식이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진행 방식과 지리학의 연구기법을

비교하면 ①지역의 현상 파악, ④시책 집행 지역에서의 효과 인식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연구 속에는 정책 제언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②필요한 시책의 구축 부분도 지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지역조사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조사사 제도는 그 사람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 탄생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조사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채용된다면, 그 직원이 지리적 소양을 갖추고, 지역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힘이 될 것이다(石原 肇, 2011).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역조사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업무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지리정보(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의 총괄 감독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조사사 또는 전문지역조사사 자격은 기술사 등의 국가자격과 함께 그 감독원의 전문기술능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수주자의 입장에서 발주자의 기술 능력이 높으면 간단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수주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과정에서 전문적 기술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발주자라면 좀 더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문지역조사사는 야외조사에 바탕을 둔 기술경험에 초점을 둔 자격이기 때문에 사진판독과 현지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지리조사 업무에서 이 자격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石原 肇, 2011).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역」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적절하게 추출하지 않고, 분석과 해법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방의 여러 문제를 보도하는 지방지 기자라는 직업은 지리적 소양을 활용하는데 최적의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지방지는 한정된 인원으로 자연과 환경,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 지역의 모든 영역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단독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학문은 지리학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리학은

관련된 학문과의 경계 영역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특히 폭넓은 세계에 대한 관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리학이 바탕이 되는 지역조사사 자격은 지방지의 현장에서도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石原 肇, 2011).

지역조사사 비즈니스계와 행정이라는 실사회에서 유용한 것이 되려면 시뮬레이션과 계량 모델분석, GIS 프로그램 개발 등은 필수이다. 이것들은 업무상 불가결한 기술로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조사를 미래로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풍토에 대한 사상, 규모를 변환하면서 과제를 부상시킬 수 있는 공간적 사고 등의 지리학적 기법과 사고가 필요하다. 21세기의 지역조사는 대책 중심의 공학적 사고에 지역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관찰하는 지리학의 사고가 더해 질 필요가 있다(三橋浩志, 2011). 지역의 진단이라는 것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하고 있는 전문지역조사사의 업무는 그 지역의 건강진단을 하는 지구·국토의 의사인 셈이다. 원격탐사와 사진측량 등의 기술은 엑스레이나 CT 촬영, MRI 등의 임상검사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사는 이러한 임상결과와 진찰, 문진 등으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지만 이것은 원격탐사 자료나 현지조사에서 지역의 재해 취약성 등을 판단하는 컨설팅 업무와 유사하다. 종합 정밀건강진단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등을 차분히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업무에서 사진판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의사는 이 분야의 전문의일까, 이 의사의 영상판독능력은 확실할까 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의학의 기초지식 만이 아니라 풍부한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구·국토라는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지역조사사」의 자격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지구·국토의 종합진료과 의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小荒井 衛,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조사사 자격은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1980년대에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필자는 환경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리학이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를 느끼면서 머지않아 환경을 다루는 지리학이 사회의 중심 학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지리학 내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환경 연구의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열풍이 불었다. 그야말로 타이틀에 “지리”라는 확실한 용어가 있어 이 분야야말로 지리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것은 필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토목공학·도시공학·조경학 등에 그 주도권을 뺏기면서 명칭마저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필자는 지리학의 연구·교육과 지리학을 활용하여 지역 공헌에 노력해 왔다. 적어도 필자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지리학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전파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지리학이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이다. 지리적 지식과 공간인식은 일상생활의 환경정비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지리학의 대담함을 알아 활용하도록 해주자는 강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정보기기의 발달은 종이 매체를 대신하는 수치지도와 GIS의 보급을 가져왔다. 자동차에서 매일 보는 내비게이션 지도와 구글맵, 각종 포털서비스에서의 지도서비스 등은 종전에 비해 일반 사회에서의 지도 이용을 한층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도”는 “지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해 온 지리학계에서는 즐거운 환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도의 사용이 넘쳐남에 반비례하여 일반인들의 지리학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 올바른 지도 보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지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삭제된 것도 그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지리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계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이 지리학이다. 종전의 지리학은 지역구조·지역성·변화과정 등을 해명·이론화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연구 성과는 기초과학으로서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합적 시야와 유연한 감성을 가진 많은 지리학도가 여러 조직과 활동의 핵심 인물이 된다면 보

다 적절한 지역론의 전개와 타당한 대책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지리학도들과 사회 쪽도 그 가능성을 그다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간과해 버리는 느낌이 많다. 오늘날에는 과거에서 현재의 연구에서 얻은 이론을 활용하여 현재부터 미래의 지역만들기가 필요하며 지역정책·지역만들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간의 논리를 추구하는 지리학에서 지역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지질공원에서 필요한 능력도 지역조사 업무이다. 이는 지질공원은 지역에 존재하는 지형·지질 자원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적 자원도 조사하여 이를 지오투어리즘이란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창환·정해용, 2014).

필자가 소속된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향토지리실습”이라고 대답한다. 매년 전국을 다니면서 야외조사를 실시하는 과목이다. 그야말로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의 핵심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야외조사 시 배운 지리적 사고 내지 지식과 조사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격이 있다면 사회적 인지도는 작다 하더라도 향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조사사 자격 제도는 지리학을 사회에 인지시키고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조차도 이러한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5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지리학 전공 출신자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격 제도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조사사 제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지리학 관련 학과에서 일본지리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인정” 커리큘럼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지리학회를 비롯한 지리학 관련 모든 학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지리학의 유용성·중요성·즐거움을 사회에 알리는데 필요한 자격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창환·정해용, 2014, “교육과 학습의 장(場)으로서 지질공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3(2), 89-96.
- 남영우, 2010, “지금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한지리학회지, 45(6), 691-697.
- 高田明典, 2014, “地域調査士連絡責任者へのアンケート調査から,” 地理, 59(8), 22-27.
- 鈴木厚志·長谷川均, 2014, “「地域調査士」制度の4年間,” 地理, 59(8), 14-21.
- 福井一良, 2014, “地域調査士講習の重要性 -人権を事例に,” 地理, 59(8), 32-36.
- 三橋浩志, 2011, “実社会における地理学応用のあり方,” 地理, 56(4), 32-33.
- 石原 肇, 2011, “地方公務員の仕事に活かす,” 地理, 56(4), 22-23.
- 小荒井 衛, 2011, “地域の特質を理解する能力とは,” 地理, 56(4), 44-45.
- 日本地理学会, 2004, “日本地理学会グランドビジョン,” 地理学評論, 77(2), 99-114.
- 榎引素夫, 2011, “報道現場からみた地域調査士制度,” 地理, 56(4), 42-43.
- 編集部, 2011a, “「地域調査のプロ」の証,” 地理, 56(4), 4-9.
- 編集部, 2011b, “「地域調査士」「専門地域調査士」になるには,” 地理, 56(4), 25-28.
- 編集部, 2011c, “科目認定にみる地理学のキーワード,” 地理, 56(4), 34-41.
- 香川貴志, 2011, “地域調査に携わる者のスタンダード,” 地理, 56(4), 20-21.
- 戸所 隆, 2011, “地域調査士制度誕生までのあゆみ,” 地理, 56(4), 10-18.
- 교신: 김창환,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hillskim@kangwon.ac.kr)

김창환

Correspondence : ChangHwan Kim, 200-701,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illskim@kangwon.ac.kr)

투 고 일: 2015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8일

투고확정일: 2015년 6월 10일